

축제 · 지역상권 동반 상승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기간 방문객 증가로 산업축제 거듭

제2회 군산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기간동안 월명동 지역상권에도 방문객이 증가하며 축제와 지역상권이 동반 상승하는 산업축제로 거듭났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18일까지 제2회 군산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월명동 일원에서 열렸다. 이 기간동안 유료장제 방문객만 1만 9,700여명으로 시는 2만명이 넘게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축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축제를 지원했으며 지역기업 참여 확대로 지역 산업축제로 동반성장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후 10시 축제를 마친



고 이후 시간을 지역상권에서 방문객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축제와 상권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월명동 지역상권은 오래전만에 손님이 증가해 번화상을 띄고 대기하는

업소가 생길 정도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진경경을 연출시켰다.

시 자체 조사결과 월명동 지난주 대비 축제기간 주말평균 20%매출이 증가(8개 업체 조사)했다. 또 수송동 지역은 초저녁에는 손님도 별로 없었다가 9시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동에 살고 있는 김모(45)씨는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 더 하기 위해 월명동 술집에 방문했는데 여러 가게를 둘러보다 손님들이 가득했다며서 '번화상을 띄고 대기해야 할 정도로 손님들이 붐비는 것을 보고 수제맥주 축제의 인기를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즐길 거리를 선보이며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공격적 온라인마케팅 펼친다

익산시 · 티몬 · 대한숙박업중앙회 체류형 관광활성화 협약

익산시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즐길 거리를 선보이며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시는 21일 이커머스플랫폼 티몬,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온라인마케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김학중 티몬 부어비즈니스부부장 김용만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지부장 등이 참석 관광객들에게 익산 여행을 독려하는 다자간 공동 마케팅을 협의했다.

특히 '머무는 익산여행'을 위해 숙박 시설 할인 이벤트인 '익산 별밤대전'을 다음 달 7일부터 티몬(www.tmon.co.kr)에서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들이 논의됐다.

'익산 별밤대전'은 소비자가 티몬을 통해 익산에서 숙박 예약 후 지역 대표 관광지 25개소 중 2개소를 방문 인증하면 2만원 특별할인 이벤트를 협의

할 예정이다.

인증 관광지로는 정복형 치유관광지로 선정된 달빛 소리 수목원 왕궁포레스트 허균익산에 날아들다 국악뮤지컬 상설 공연장인 합라 한옥 체험관, 50년만에 공개된 아가페 정원, 4,000여개의 향아리의 모습이 장관인 고스타 등 익산시의 유·무료 관광지이다.

또한 이번 '익산 별밤대전'에는 티몬에 입점한 지역 내 130여개 숙박시설이 참여한다.

아들은 SNS를 통해 MZ세대 관광객들에게 사진 맛집으로 빠르게 입소문 나고 있는 수목원 국악 뮤지컬 카페 등을 숙박 시설과 함께 홍보해 익산의 또 다른 매력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김학중 티몬 부어비즈니스부장은 "국내여행 수요도 해외여행 시장 못지않게 성장하면서 취미와 고객 트렌드를 반영한 여행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폭염기 북부권 축산악취 근절 나선다

상지원 정착촌 축산농가 간담회... 악취저감장치 · 배기장치 가동 관련 협의

익산시는 폭염에 따른 북부권 축산 악취근절에 나선다.

시는 21일 하절기 북부권 고질적인 축산 악취 민원에 대비해 합열읍에 위치한 상지원 정착촌 9개 축산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상지원 정착촌은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돼 11억원을 들여 전체 양돈농가 9호(돈사 92개동, 사육두수 1만4,000두)에 인개분무시설과 바이오커본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밀폐화 고숙분뇨발효시설 등을 설치·운영 중이다.

각 농가마다 악취저감장치 운영이 개별적으로 이뤄져 악취저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민원이 지속되어 악취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하절기 양돈시설 악취관리 메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상지원 정착촌 9개 농장에 악취저감장치 및 배기장치 가동 시간과 주기 등을 일원화하도록 협의했다.

또한 10월까지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과 축산악취 상시감시반 수시 순찰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 악취가 지속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다이어로움, 전국 최대 20% 할인혜택 계속

지역화폐 익산다이어로움이 전국 최대 20% 혜택을 유지하며 골목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최대 10%의 충전인센티브를 충전할 때 추가적립금으로 선지급해 혜택을 더욱 극대화한다. 소비촉진지원금 최대10%는 그대로 유지해 최대 20% 다이어로움 혜택이 변함없이 계속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해 충전인센티브 지급 구매액을 다음달 1

일부터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조정해 이용자층을 넓힌다. 월 보유하는 개인당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충전한 70만원에 대해 50만원까지는 20%(인센티브 10%, 소비촉진지원금 10%)혜택을 50만원 초과 70만원까지는 10%(인센티브 5%, 소비촉진지원금 5%)혜택을 지급한다.

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이번 개편에 시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체감 할

인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방식 변경에 집중했다.

충진인센티브를 사용할 때마다 지급되는 캐시백 방식에서 7월부부터는 충전할 때마다 추가적립금을 최대 10%까지 선지급해 활용 폭을 넓혔다.

소비촉진지원금은 현재 지급방식으로 유지해 익월 20일 충전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10%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인정받은 익산다이어로움이 시민들의 경제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의 맛을 알리는 '군산 대표 맛집' 선정

군산시가 지역의 대표 음식을 육성하고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37개소를 2023년 군산 대표 맛집으로 선정했다.

군산 맛집 선정은 지역을 대표하고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해 외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3월 영업자 신청 및 시민 설문조사 등 추천을 받아 1차 서류 심사 및 2차 군산맛집 발굴 육성위원회의 현지 평가를 통해 음식의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군산의 맛을 대표하는 군산 맛집으로 최종 지정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맛집은 궁정꽃

계장분점(조촌동) 1개소로 메뉴의 맛은 물론 위생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으며, 기존 맛집 36개소와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운영된다.

지정된 업소는 맛집 지정서 및 표지판 전달,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등이 지원되며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음식 소개 등을 비롯한 업소의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며 맛집 지정률 향상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친절·위생 교육을 통해 대표 맛집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모델 포스터 제작

군산시가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모델을 선발해 2023년 제11회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했다.

시는 시간여행축제의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시민모델 선발대회를 진행해 축제 대표모델을 선발했으며, 총 142팀이 접수, 이 중 심사를 통해 최종 3팀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3팀은 포스터 모델 및 축제 퍼레이드 참여 등 축제 대표모델로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주도해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군산시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시설장 및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대표자,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21일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시설 내 학대 예방을 도모하고 노인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노인시설 노인학대 사례 증가와 시설학대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오 관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은 시설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학대 판정 및 지자체 처분내용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대 판정지표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 및 대표적 학대 행위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